

2026년 9월 18일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

재속프란치스칸의 영성 생활

우리 회헌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영성 생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.

회헌 14조

2. (회칙 8) **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.**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, 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킨다. 그러므로 미사성제는 형제회 생활의 중심이다.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 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여, 가능한 자주 **미사에 참여해야 한다.**

3. 개인 성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, 회원은 **교회의 성사에 참여**할 것이다. 회원은 각자의 본당에서 전례가 생동적으로 거행되도록 특히 세례, 견진, 혼인 및 병자성사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.

4. 회원과 형제회는 교회 전례기도의 양식과 예절서의 지침에 유의하며, 특히 **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특전으로 여겨야** 한다. (예절서 103-104 참조)

5. 성부의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께 경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. 그렇지만 회원은 **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.** (예절서 103-104)

- 우리의 회칙과 회헌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심화하도록 격려한다.
-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.
-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추구한다.

변화됨이란 (성령에 의해) 바뀌는 것,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것,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는 것

- 어떤 종류의 기도가 이러한 여정에 적합할까?
 - 성서읽기와 영적 독서*
 - 묵상
 - 성체 성사
 - 전례 기도 - 시간경 (성무 일도)
 - 예수님과의 대화
 - 관상

- (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)

**우리의 영적 독서에는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, 그들에 대한 글, 프란치스칸 작가가 쓴 글, 현재와 과거의 교황님들의 회칙을 포함된다.*

- “관상은 프란치스칸의 일상적인 기도 자세이다.” (회헌 14.5 참조)

- “삼위일체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일치로 부르신다.” (회헌 14.3 참조)
- “성체 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.” (회헌 14조)
- “성무일도는 우리를 기도하는 교회와 일치시킨다.” (회헌 14.4)

(FUN 지침서에서)

월례회에서나 기도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체험을 위한 제안

성 프란치스코의 주님의 기도에서 받은 영감으로 쓴 기도로 시작해 보시오. (타우 USA 여름호도 보시오)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a-prayer-inspired-by-the-our-father/174-fa-ed-1-page-158>

각구절과 성 프란치스코가 쓴 주석을 번갈아가며 읽으시오. 이 주석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? 성 프란치스코가 아버지 하느님에게 어떻게 “말하고 있는지”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?

이제 성모송으로 해 보시오. 혼자서 하든, 기도 파트너와 함께 하든 각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아보시오.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주석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 아버지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, 복되신 동정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만약 형제회 월례회에서 이것을 한다면, 자신이 쓴것을 나누어 볼 생각을 해 보시오. (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Mary Stronach, OFS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)

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해

- + 당신의 기도 생활이 재속프란치스칸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?
- + 예수님과 더 가까워 졌다고 느낍니까? 아니면 더 멀어 졌다고 느낍니까?
- + 위의 기도 체험이 당신이 기도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?
- + 기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?